

2014년 5월 ■ 6월 ■ 7월 ■ 8월



거룩한 사랑

잡지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공식 간행물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파티마의 성모님



은총의 성모님

화관 씌우기 5월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마리아의 축일

본지의 독자들에게 -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가 수년 간 성장하고 변해 온 것 같이, 2011년에 년 4회의 정기간행물, **거룩한 사랑 - 알리는 뉴스레터** 로써 시작되었던 이 출판물도 또한 성장하고 변했습니다. 이번 호부터 **거룩한 사랑 잡지**의 표제, 년 3회의 원색 정기 간행물로 거룩한 사랑을 세상에 더 잘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우리의 보도를 계속해서 확장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랑의 선교사업과 선교회,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본고장인 마라나타 샘과 성지, 그리고 특히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즉,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개인의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메시지들을 포함합니다.

거룩한 사랑 잡지

2014년 5월 ■ 6월 ■ 7월 ■ 8월

제1권 제1호

목 차

전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2쪽
하느님의 지비 주말	3쪽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님 축일과	
화관 씌우기 5월제	8쪽
어머니 날	10쪽
아버지들을 위한 특별 은총	11쪽
모든 성직자에게 주는 충고	12쪽
순례자 증언들	16쪽
영적 여정 - 제12편	18쪽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io 44039 USA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교육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신청: 440-327-5822

기도 신청: 440-327-8039

기도 신청 이-메일: mamshl@holyllove.org

선교회 연락: prayers@holyl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love.org

웹사이트: www.holyllove.org

한국어 옮긴 이: 거룩한 사랑의 종 한인 선교회

Korean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 (KMSHL)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 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천국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사랑의 위대한 두 계명, 곧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 복음 메시지의 실천,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목격자 모린 스위니 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시현 (示現 vision), 발현, 메시지들은 198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복되신 어머니, 많은 성인 성녀들께서 거의 매일 모린 자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공동 기도) 운동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메시지 인용구가 이 선교회의 목적과 중심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선교사업의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즉,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고, 수많은 초자연적 은총이 충만하게 이곳에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곳의 선교사업은 모든 세대와 나라와 이데올로기(ideologies 이념, 관념)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고통의 성모님, 2011년 9월 15일/자정 기도모임)

“이 선교회의 (기도의) 성지와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감과 은총,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정 어린 초대에 따르십시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2012년 1월 20일)

“이 선교사업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동기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다양성에 빠진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다. 온갖 종류의 관심사를 거룩한 사랑에 우선하여 두는 마음은 진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예수님, 2012년 1월 17일) ■

마라나타 샘과 성령에서의 하느님의 지비 주말

2014년 2월 5일
공고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를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라. 봄이
확실히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내 자비의 축일에 하나 된 성심의
별판에 올 것이다.”



2014년 4월 26일

(오늘 일찍이 복되신 어머니께서
자정에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밤 여기에 너희를
환영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너희는 인근에서 그리고 멀리서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말에 이곳에 오기
위해 큰 희생을 하였다. 천사들은

예수님과 너희의 천상 어머니인 나처럼
너희들이 오는 것을 오래 기다렸다.”

“이 메시지들 안에서 사랑과 진리의
거룩한 피신처를 부디 발견하여라.

메시지들은 여기에서 풍부한 수많은
은총에 의해 부각된다 (드드러지게
드러난다).”

“나는 너희 각자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는 너희의 필요를
너희보다 더 잘 안다. 나의 중재를
믿어라.” ■

진리에 집중하는 이유

“너는 이 메시지들에서 왜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지 묻고 있다.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이 의로움 안에서 화해하기를 요구한다.
이것은 모두가 거룩한 사랑인 진리의 빛에 들어갈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진실이다.”

(예수님 - 2014년 6월 5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14년 4월 27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오후 3시 기도모임

(이 메시지는 며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에 복되신 어머니께서 오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모든 사람이 내 아드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메시지가 전면적인 영향을 주도록 그분의 대중을 위한 메시지에 서문을 달기 위해 왔다.”

“내 아드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비 안으로 부르시면서 시작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영혼들이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을 서둘러 인식하고 당신 자비의 필요성을, 아니면 당신의 정의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신다.”

“그분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은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전통의 진리를 고수하는 마음속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성전 산에 앉으실 당신의 재림을 간단히 언급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남은 자들을 거룩한 국민이라고 부르신다.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나라로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의 이러한 진실들에 관해서 묵상하여라.”



2014년 4월 27일

(오후 3시 기도모임)

예수님께서 하느님 자비의 모습으로 여기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너희가 나의 신성한 자비의 축일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면서, 나의 거룩한 사랑의 자비, 곧 메시지들과 여기 이 성지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모든 은총 또한 찬미하여라. 거룩한 사랑은 세상의 마음과 나 자신의 비통한 성심 사이에서 나의 마지막의 뜻깊은 개입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내가 신자들의 기도의 공로로 미루고 있는 다음의 개입은 내 정의가 될

것이다. 내 억제 활동의 힘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 보류된다. 오직 그분께서만 그 활동을 허가하는 무서운 시간을 알고 계신다.”

“나는 남은 자들을 강화하고 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들의 결심을 확고히 하기 위해 온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세상의 양심은 진리의 타협 때문에 뒤엎혀지고 있다. 악은 악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죄는 더 이상 죄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이 나의 자비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내 자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지만 실은 나의 신성한 자비는 세상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이다.”





안에서 사는 마음속에 존재하게 운명지어진 나라다. 이 나라는 영혼들을 위한 나의 넘쳐 흐르는 자비로 세워진다. 이 나라는 내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편애하거나 오류 속에 있는 이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시거나 영합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완전한 시간에 내게 모든 오류에 대한 승리를 주실 것이며 나는 성전 산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공공연히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다, 오늘 나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놓고 있다.”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 전쟁이나 핵 재난, 심지어 위험한 자연 재난도 아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계속해서 나와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찾는 것을 중단한다. 천상과 지상 사이의 분리가 인간에게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하고 가장 시급한 수정의 원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평화를 위한 해결책과 번영의 회복이 있다.”

“오늘 나는 너희를 새 나라, 곧 다른 모든 나라들과 구별되는 나라, 지리적인 국경이나 정치, 경제에 구애되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왔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를 것이다. 그 나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룩한 사랑

“이 거룩한 나라(민족), 내가 말하는 이 진리의 나라(민족)는 남은 신자들이다. 이 완강한 영혼들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닦을 것이다. 그들은 전통을 고수하면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였다.”



독서: (2테살 2:13-15)

[구원받도록 뽐힌 이들]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성경)

“오늘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그리고 너희 주위의 세상에서 나의 자비를 기념하기를 바란다. 이 곤란의 시기에 너희와 세상을 격려하는 것은 나의 자비다. 너희는 어리석게 선택하거나 죄의 결과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여라. 타협된 진리의 덩굴에서 의로움의 새로운 길로 나와라.”

“내 형제자매들아, 세상의 마음을 나의 신성한 자비로 감싸기 위해서 오늘과 어제 밤의 너희의 모든 기도들을 쓰고 있다. 따라서 비통한 내 성심이 다소 진정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요한 23세 교황님과 함께 계시며 그분들께서 모두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

하느님의 자비 주일 - 두 교황님의 축복

2014년 4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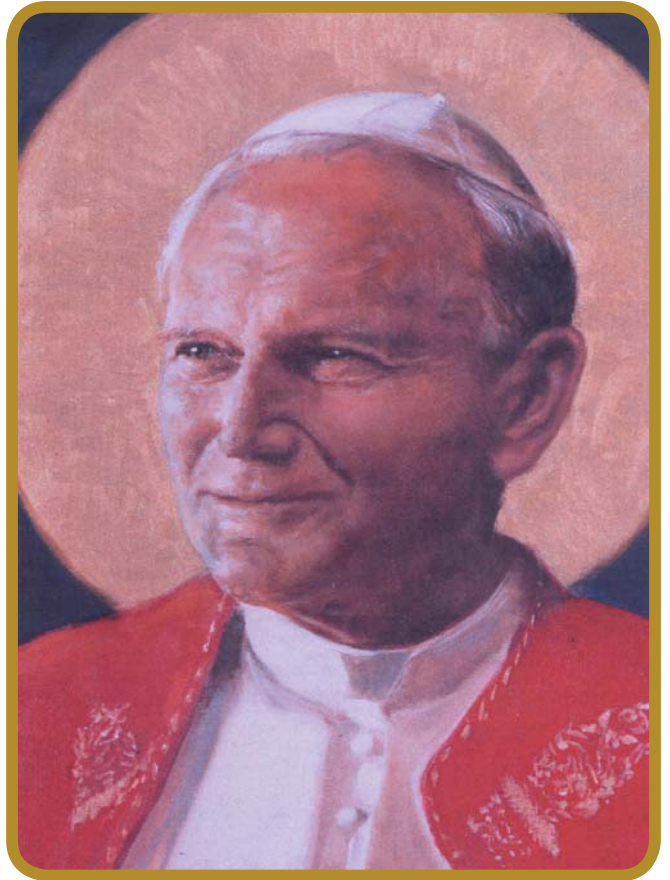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아드님의 지극히 비통하신 성심은 주말에 여기에서 바쳐진 기도들과 신심으로 크게 진정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비통하신 성심께 보상하는 사람들에 집중하시어 귀를 기우리신다. 벌판에 모인 사람들은 또한 두 교황들로부터 교황직의 축복을 받았다. 사람들이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따라서 축성을 받았다. 천상의 모든 성인들은 이 선교사업의 진실성의 실재를 알고 있다.”

“이제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축일 [6월 29일]에 있을 다음 번 발현을 기대하여라.” ■



성 요한 23세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모든 백성과 민족들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여기에 오는 순례자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이 성지에서 천국이 제공하는 평화를 누리는 것을 환영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마리아 축일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나는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의 영광스러운 칭호 아래 너희에게 왔다. 내 성심은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에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피신처다. 거룩한 사랑은 세상이 그 차체의 신이 되고 각자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는 것 같은 오늘날 세상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거룩한 사랑은 선과 악의 차이를 규정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악의 표적이 된다.”

“내 아드님의 성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분의 성심을 매우 슬픔에 잠기게 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사랑을 거스르는 죄악들이다. 겉보기에는 착한 사람이 거룩한 사랑의 진리에 반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고 동시에 그분을 반대할 수는 없다. 그들의

분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만과 정신적인 시샘이다.”

“거룩한 사랑은 불가지론(不可知論 agnosticism)과 거짓 종교들이 있는 요즘, 세상이 필요로 하는 통합하는 힘이다.”

“천국은 계속해서 이 선교사업과 메시지들과 성지에 호의를 베풀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남은 자들의 희망, 곧 은총과 힘의 수단 · 매개체다. 나는 너희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의 구원인 거룩한 사랑 대한 너희의 진심어린 추구를 요구하면서 왔다. 거룩한 사랑은 너희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이 진실을 믿어라.”

* 특히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의 악행 (또는 죄)들.



성모님 대관식 - 2014년 5월 5일

저녁 7시 기도 모임 - 성모님 대관식 (May Crowning)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마리아 축일 17주년 기념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마리아님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네다섯의 천사가 그분 주위에
있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선교사업에 대한 너희의 신뢰와 그리고 내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오늘밤 여기에 와 주어서 고맙다. 나는 너희의
기도와 희생을 기뻐한다. 무엇보다도, 오늘밤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자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관문)
인 내 티 없는 성심에 끌어들이기 위해 왔다. 내 성심으로 들어가는
모든 영혼은 거룩한 사랑을 통해 그의 삶이 영원히 바뀌고 있다.”

“나는 오늘밤 너희의 모든 청원을 천국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2014년 5월 11일 - 어머니날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매 현 순간마다 그리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내 어머니의 성심을 준다. 그분의 티없으신 성심은 모든 자비 그 자체, 모든 사랑 그 자체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의 어머니이다. 내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너희의 보호이시고 너희의 도움이다. 그 밖의 다른 어머니와 같이 그분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내 어머니의 성심은 모든 진리시며 당신 자녀들을 진리에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 각각을 다정하게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어머니는 오직 그의 자녀들을 위해 최선만 바란다. 그 때문에 너희의 천상 어머니께서 각자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신다. 그분의 티없으신 성심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관문)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애로운 성심의 불꽃은 당신 자녀들의 영혼의 성화를 위해 준비하도록 그 영혼들을 정화하고 그들의 죄책감(죄)을 씻어 주신다. 너희는 이 정화를 한 어머니가 잘못을 범하는 어린아이를 바로잡아 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어머니는 다정하게 그분의 어린아이를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리신다.”

“오늘 나의 어머니께 많은 사랑을 드려라.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분께 지금 이 순간의 선물을 드려라. 어머니께서는 모든 영혼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시면서 온 인류에게 두 팔을 벌리신다.” ■



해 결 책

“거룩한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이다.”

(예수님 - 2014년 2월 3일)



요셉 성인 성지에서 아버지들을 위한 특별한 은총

2014년 6월 1일 -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가정의 일치를 위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요셉 성인께서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형제자매들이여,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와 함께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방법으로 내 힘(영향력)이 지상에 오기를 명하셨습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에 있는 내 이름의 성지에 가는 아버지들은

그들의 가족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신중으로 성별(聖別)될 것입니다. 가족의 각 구성원은 개인의 거룩함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의무감의 부름에 응하면 그들은 가족 단위에서 평화와 일치를 찾을 것입니다.”

“나는 수양 아버지로서의 나의 자애로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





2014년 5월 24일

모든 성직자에게 주는 충고

아르스의 사제 요한 비안네 성인

서론

아르스의 사제 요한 비안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형제들이여,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 어리고 건설적인 비판을 전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쌓아올리고 강화시키며, **호응되면**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내 말에 기분이 상한다면 교정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나는 진리를 억누르려는 의향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진리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내가 파견되어 전하는 비판 안에서 진리의 영을 알아보십시오.”

거룩한 성소를 위한 성직자의 매일 기도

“**사랑하올 예수님**, 제 성소(聖召)는 **거룩한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은 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와 힘이 될 것이옵니다. 제 성소는 오직 제가 거룩한 만큼만 강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올 예수님, 제가 제 시간의 사용에서 사심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제 양 떼의 영적 필요를 염려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게 선과 악의 차이를 단언하는 용기를 주소서. 제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진리를 타협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마소서. 제가 모든 영혼 안에서 당신을 뵈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지쳐 있을 때 기도하도록,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랑하도록,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 제 마음을 열도록 저를 격려해 주소서.”

“아멘.”

첫째 충고

“내 형제들이여, 천상(Heaven 천상계)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선과 여러분이 어떤 영혼들과 어떤 교구들 안에서 영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가운데에 사악한 영향력 (행위)도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에 의해 또한 목격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에 위축되거나 이 말들을 분열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은 이런 말은 죄와 잘못을 뿌리 뽑기 위해서 여러분을 고무시켜 여러분의 마음과 지위를 들여다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짐하여 말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무류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최악의 정화를 통해서만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성소를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강화되고 여러분의 성소는 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설교단에서 죄를 분명히 정의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특별 이익 단체의 환심을 사거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죄든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력이나 상류층의 권위, 명성이나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감추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소를 세속적인 직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의 성소의 기초 즉, 영혼들의 구원을 무시하면서 호의나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유일한 입장에 서려고 계책을 세우지 마십시오.”

“성적 활동에 결코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악령, 곧 동성애와 성욕의 영입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끝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내게 지시하실 것입니다.”

독서: (1 티모테오 6:11-16) [믿음을 위한 싸움]

“하느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 대신에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제때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주님이신 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뵈 일도 없고 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

“거룩한 사랑은:”

- “사랑의 위대한 두 계명 -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 “십계명의 실현과 구현.”
- “모든 영혼이 받게 될 심판의 기준.”
- “개인의 거룩함의 척도 · 기준.”
- “새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관문.”
-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
- “모든 영혼이 거쳐가야 하는 마리아 성심의 사랑의 정화의 불꽃.”
- “죄인들의 피신처이며 이 마지막 시대의 방주.”
-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 사이의 일치와 평화의 근원.”
-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이다.”

“오직 악만이 거룩한 사랑에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예수님 - 2010년 11월 8일)

자장 큰 두 계명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마태오 22:34-40 [가장 큰 계명])

애덕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이다. 나는 애덕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왔다. 너희가 알다시피, 거룩한 사랑은 두 개의 위대한 계명 즉,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십계명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내 어머니의 티없이신 성심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이다.”

“거룩한 사랑은 어둠의 그림자를 밝히면서 지구에 광선을

넘치게 하는 태양에 비유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사도 베드로에게 맡겼던 천국으로 가는 열쇠와 같다. 그것은 내 예수 성심과 신성한 사랑과의 일치에 이르는 문이다.”

“거룩한 사랑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창조주와의 조화이다. 이것은 율법의 해석이고 모든 성화를 위한 수단이다.”

“사람의 의지는 거룩한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고 분별에 직면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은 평가될 수 없다. 거룩한 사랑이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사랑은 매 현 순간 제의되고 영혼을 영원까지 따라간다.” (예수님 - 1999년 6월 28일)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영향력

성 프란치스코 드 살의 메시지에서

“나는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영향(력)에 대해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거룩한 사랑은 가장 평범한 과업을 하느님의 손안에서 강력한 구원의 도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어둠을 진리의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은 죄를 이겨내는 승리를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랑은 모든 마음의 회개의 기초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도록 자유의지를 내맡기는 수단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영혼이 모든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알아보도록 도와줍니다.”

“이것들 (거룩한 사랑의 영향들)은 영혼들이 이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고 메시지들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사업을 지지하는 확고한 이유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에 의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룩한 완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2012년 1월 14일)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이 없다면 선행과 회개, 보속은 무의미합니다. 거룩한 사랑은 거룩함과 의로움, 진리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영혼은 거룩한 사랑을 떠나서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사랑은 영혼을 자신의 중심에서 떠나서 하느님과 이웃의 중심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마음이 하느님의 뜻과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영혼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하느님과 이웃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서서히 잊어버립니다. 이런 영혼은 하느님의 눈에 보석이며 거룩함에 이르는 계단을 신속하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완덕의 길입니다.” (2012년 1월 16일)

둘째 충고

“내 형제들이여, 이 건설적인 비평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성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며칠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출처를 경고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실로 말하지만, 이야기하기 위해 오는 사람은 나, 아르스의 본당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교구 안에서 천상 발현의 은총이 주어지거나 이런 영적 현상의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일을 열린 마음으로 고려할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탄압되어 왔고 그 일들에 수반된 은총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런 천상의 발현과 메시지들이 너무 자주 교구장(local ordinary)에 의해 간섭과 경쟁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로서 환시와 목격증인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조치들을 취합니다.”

“만약 ‘조사’가 끝나면, 그것은 흔히 진리를 찾아내기 위한 정직한 동기가 아니고 천상의 은총이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체하는 숨겨진 동기로 행해집니다.”

“더욱이, 어디에서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과 사탄이 권세를 얻기 위해 매 현 순간, 모든 곳에서, 각 영혼 안에서 역시 싸웁니다.”

“천국은 하늘이 원할 때 활동하십니다. 아무도 하늘이 언제, 어디에서 또는 얼마 동안 말하실지에 대해서 지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성직 지배권(hierarchy)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어려운 사항일 것입니다. 사실상 나는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무엇을 말하고 행하실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평신도를 강화시키기 위해 하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속의 겸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독서: (에페소 4:10-16)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독서: (1테살 5:19) [마지막 권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셋째 충고

“오늘 나는 성직 지배권에게 그들은 처음에는 사제이고 그 다음에 주교와 추기경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사제는 그들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랑 밖에서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사제들은 말과 행위에서 그들의 양 떼에게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익이나 권한 남용에 관한 어떤 숨은 의도도 없음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사제들의 의무는 사람들에게 성사(the Sacraments)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사들의 받아들임은 설교단에서 조장되어야 합니다. 한 주일에 제공되는 30분 (정도)의 고해시간은 어떤 사제의 양 떼의 영적 복지에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 훈계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행위의 나쁜 열매입니다.”

“사제는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그의 성소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제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여가 시간을 채우시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제는 사회적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체 조배(Eucharistic Adoration 聖體朝拜)를 장려하는 본당은 크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성소가 성체 조배가 장려되는 본당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캔들(scandal 추문)을 일으키는 본당에서 성소가 싹이 트고 꽃이 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우선 성직 지배권과 사제들을 통해서 또다시 개인의 거룩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충고

“사제들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의 훈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소는 오직 여러분이 거룩한 만큼 강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임에 의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십계명의 구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랑을 통해 더 깊은 기도 생활에 이르는 길을 발견 할 것이며 크고 작은 희생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용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해지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고 다가가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사제들과 성직 지배권에게 말한 것 중에서 아무것도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자존심을 치켜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직자를 진리 안으로 다시 부르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찾아내고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소는 타협됩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반대하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것이든 자신의 권익을 얻으려고 사람들과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 여러분의 권한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입니다.”

“아니요, 나는 절대로 내 말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라고 파견되었기 때문에 나는 타협 없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주어야 합니다. 나는 뉘앙스(nuance, 미묘한 차이)나 타협 없이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비방 없이 신앙의 진리 안에서 모든 성직자들의 일치를 위한 나의 부름을 굽히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모든 것을 조롱조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찰하십시오.”

독서: (에페소 4:2-7, 11-16)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

2014년 5월 27일

아르스의 사제 요한 비안네 성인께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메신저 (messenger, 사자 使者)여, 만약 교회가 안으로부터 치유가 필요하지 않다면 사제들에게 충고하기 위해서 내가 파견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사탄은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과 사제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개인의 거룩함을 도전함으로써 교회의 중심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리더십의 힘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제가 거룩하면 그가 그의 성소(vocation 聖召)을 통해 접촉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제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고위 성직자들이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진리를 타협하고 싶어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고위 성직자들과 사제들이 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한 내 말이 열렬한 변화를 격려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유혹에 넘어가고 영혼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지향을) 위해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증언



향상된 신장 기능

나는 급성 신우신염(腎盂腎炎) (pyelonephritis)의 병력(病歷)이 있습니다. 1984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感染)입니다. 증상의 일부는 떨리는 오한, 구역질, 고열, 통증, 요통 (허리 통증)입니다. 급성 감염에서 증상들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열이 나고 그런 다음에 통증이 옵니다. 신장에 더 염증이 일어남에 따라 강한 통증과 식욕 부진, 두통과 감염의 모든 일반적인 영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종류의 신장 통증은 계속되고 파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 점에서 신장 결석(結石) (kidney stone)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한 부분에 머무릅니다.

나는 2010년에 3월 요셉 성인 축일에 거룩한 사랑의 성지에 왔었습니다. 내가 오기 바로 전에 나의 신장 기능 검사는 높았습니다. 나는 와서 이 성지에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성지 방문후 3일만에 실험실 연구가 실행되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현저하게 '향상된' 신장 기능을 보였습니다. 복되신 성모님, 감사합니다. ■

* 진단 서류는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보관되어 있음.

암 치유

저의 어머니는 간내 담관암(膽管癌 Cholangiocarcinoma)이라는 드문 침습(侵襲)

성의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간의 담관(bile duct)에 생기는 담도암 (胆道癌 carcinoma of bile duct)입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는 예후(prognosis 豫後)가 매우 불리합니다. 종양학 전문의는 큰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 저의 어머니가 “국부적인 통제”의 희망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방사선 치료와 화학 요법이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희망은 암의 퍼짐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적어도 종양을 줄어든게 하는 희망입니다. 완전한 치유의 희망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진단 받기 전에도 저의 부모는 매주 거룩한 사랑의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진단 후에도 그들은 어머니가 아플 때까지 여전히 그들의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신에 나는 여러번 방문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부디 나의 어머니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부디 이 무시무시한 암에서 나의 어머니를 치유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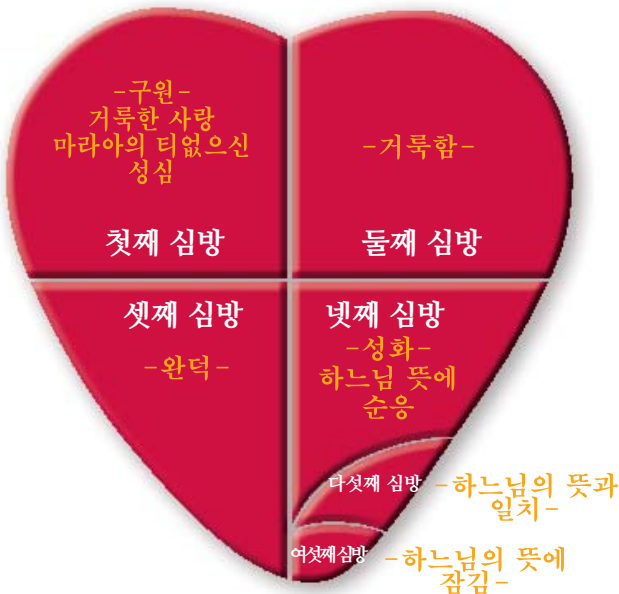
7개월 후 어머니는 방사선과 화학 요법 치료를 마쳤습니다.

K.M. 어머니는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법) Scan 과 CAT (computerized axial tomography) Scan 을 받았으며 기적적으로 스캔(scan, 체내 방사능 분포 사진)이 맑게 돌아왔습니다! 종양학 전문의 (Oncologist)는 종양(tumor)이 없어졌고 스캔이 깨끗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전문의는 이 암은 치료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 치유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어머니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생명의 은사로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

A. P-A.

영적 여정 - 제12편

하나 되신 성심의 셋째 심방: 완덕



영적 여정 시리즈의 제11편의 끝에서 영혼이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와 둘째 심방들을 통과하면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정화와 완덕으로 나아갈 때, 그가 예민하게 하느님의 은총의 힘을 알게 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영혼이 하느님의 뜻에 순응과 그 다음 일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매 현 순간에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의 여정으로 끌어들이도록 제공됩니다.

영혼은 셋째 심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느님 뜻의 이 은총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둘째 심방의 영성에 대해 제11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2001년 1월 26일에 주신 하나 되신 성심의 계시에 관한 메시지의 끝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성심의 둘째 심방에 있는 영혼들은 그들을 위한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더 깨닫게 되고 있으며 거의 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더욱더 하느님의

뜻에 내맡기면서 내 성심의 셋째 심방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영혼들에게 그분 은총의 베푸심은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 나아가려는 영혼의 욕망과 어떻게 완전한 비례를 이루는 지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2000년 10월 20일에 주신 메시지의 결말에서 하나 되신 성심의 계시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세상에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총은 내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려는 영혼의 노력에 수반하고 조화가 잡혀있다. 둘째 심방은 거룩함의 추구를 나타내고,

셋째 심방은 완덕을, 넷째 심방은 하느님의 뜻과의 순응 그리고 다섯째 심방은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를 나타낸다. 내가 인류에게 주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삶의 가르침이다.”

천국은 하나 되신 성심의 셋째 심방을 완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영적 여정” 시리즈의 이 제12편에서, 천국이 이 셋째 심방의 영성을 설명하는 그 메시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완덕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기 위해 거룩함에 이르는 영혼의 진전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유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전은 주로 영혼 안에 미덕, 특별히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의 깊이 (혹은 깊이의 결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St. Margaret Mary Alacoque)의 축일인 2002년 10월 16일에 주어진 메시지에서 이 ‘예수 성심의 성녀’께서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거룩한 사랑의 덕행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성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자매여, 여러 해 전 내 축일에, 예수님께서서는 자매에게 그분 성심의 많은 심방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영혼이

심방을 통하여 전진해 나아감에 따라 영적 성장은 각 심방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영혼은 그의 거룩한 사랑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때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은 더 사랑하기 시작하지 않는 한, 거룩함이나 완덕을 받아들이 수 없습니다.”

“첫째 심방은 회개와 거룩한 사랑이므로, 그곳은 또한 신성한 사랑인 다른 모든 심방에 이르는 소개이고 관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2000년 1월 31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더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이 거룩함에 이르는 진행에서 둘째 심방에서 (영적 여정 시리즈의 제11편 참조) 셋째 심방으로 가는 영혼의 과도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심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 은총은 영혼을 더 경건한 삶으로 부추기면서 영혼에게 내리진다. 영혼의 영적 욕망이 순수한 사랑에서 오는 영적인 욕구가 될 때, 영혼은 내 성심의 셋째 심방으로 들어간다. 내 성심의 이 셋째 심방에서, 나는 영혼들을 하느님의 뜻과의 더 완벽한 일치와 순응을 통하는 성덕(聖德)을 격려한다. 영혼은 그가 욕망하는 만큼 내 성심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다. 영혼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없애면 없앨수록 그는 더욱더 깊이 덕행을 쌓고 내 성심의 심방으로 결합한다. 나는 모든 영혼에게 내 성심의 지성소의 문을 열고 있다.”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여 진행하면서 덕행을 쌓고 그리하여 성덕 안에서의 성장을 위한 영혼의 용망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2014년 2월 26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은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거룩한 사랑 안에서의 수행에 의해 가능하다. 거룩한 사랑은 십계명과 모든 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받아들이는 영혼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자기 성찰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거룩함의 기반은 덕을 그리고 계명들에 대한 준수를 향상시키려는 욕망이다. 이것은 거룩함을 반대하는 파괴적인 행위를 개선하려는 욕망이다.”

“영혼이 먼저 그것을 갈망하지 않으면 아무도 덕이 높거나 거룩할 수 없다.”

영혼의 다른 모든 덕의 완성(완덕)의 확정에서 거룩한 사랑의 주된 중요성이 2005년 6월 27일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주신 메시지에 설명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토마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너희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거울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깊이가 다른 모든 덕행의 반영과 함께 반영됩니다. 사랑은 모든 덕행을 통해 비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울을 흐리게 하고 영혼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덕의 깊이나 그의 잘못과

결함을 명확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영혼이 하느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들의 내적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응시해야 하는 거울입니다. 이것은 신중한 돌봄과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한 모습과 아름다움입니다.”

“영혼에서 모든 덕행의 깊이는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깊이에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영혼은 인내심의 크기는 그가 사랑하고 있는 만큼 인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영혼은 그가 사랑하고 있는 만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가장하는 것은 거짓 덕행이고 거룩한 사랑의 반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은 그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거룩한 사랑의 저울에서 끊임없이 무게를 달고 측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영혼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거룩한 사랑의 더 완전한 전형(형체)이 될 것입니다.

영혼에서 다른 모든 덕행의 완덕을 결정하는 다른 주요한 덕행 (거룩한 사랑과 함께) 거룩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혼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아집을 전부 내맡김에 의한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랑의 완덕의 길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만 눈을 뜨고 하느님만 신뢰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겸손의 덕행을

단호하게 실천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영혼이 개인의 거룩함과 성화에 이르는 여정을 따라 진행할 때 덕행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에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겸손의 미덕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3월 18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가는 길을 제일 잘 안다고 믿기를 좋아하지만, 바리사이들도 그런 식으로 믿었다. 그러나 내가 보여주는 길은 영적 교만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오직 겸손의 여지를 남긴다. 내 성심의 심방들은 하찮은 자에게 열려있다. 여기에 오만이나 독선, 용서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 자가 되어 이 문에 접근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덕행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은총의 젖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십자가에서 너희를 후원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은 사탄의 길을 돌아다니는 도보 여행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자신을 나의 작은 사랑의 순교자가 되게 할 사람들을 높이 들어올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성심의 심방들, 특히 셋째 심방를 통해 빨리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즉, 하느님의 뜻에 겸손한 내말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000년 7월 26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신속하고 확실한 전진을 위한 비밀을 너희와 함께 나누기 위하여 왔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내말김이다. 이 내말김에서 모든 덕행이 일어난다. 이 내말김에서 아집(我執)이 꺾인다. 영혼은 그가 어떤 심방에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는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 순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너희는 이것이 성덕(聖德)에 이르는 비결이라고 너무 쉽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너희는 그것이 쉽지 않으며, 천국의 지원 없이는 가능조차도 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안 즉, 천국의 지침의 중요성을 깨닫는 은총을 청하여라. 너희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시도할 때, 너희는 일정한 미덕에서 너희의 단점과 약함을 빠르게 찾아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게 청하여라.”

우리가 첫째와 둘째 심방들에 관해서 본 바와 같이 영혼의 회개 과정에서 겸손한 개방 상태는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특히 셋째 심방에서 그러합니다. 덕행에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영혼은 먼저 그의 결점과 덕행의 부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점은 2000년 11월 14일 신성한 사랑과의 대화에 대한 메시지에서 분명하게 지적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메신저(messenger, 사자 使者)야, 하나 된 성심의 계시의 초점은 지금 이 순간에 개인의 회개다. 그렇다,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회개다. ‘나는 회개했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약간을 살펴보고 있다. 이 메시지에 진심으로 전념한 사람은 그의 결점과 미덕의 부족을 분명하게 본다. 왜냐하면 이 지식에 비추어서만 그는 거룩함을 증대시키고 더 큰 노력으로 모든 약점을 버리고, 내 성심의 심방들에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자기만족의 사람들로부터 거의 위로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잘못을 확인하지만, 그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교만으로 눈이 멀게 되는 사람들이다.” “나의 위안은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있다. 그런 사람은 그가 위안을 원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안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는 그의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내 성심과 그의 마음 사이를 지나가는 모든 은총은 우리 사이에 남아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린다.”

며칠 후 2000년 11월 26일 또 하나의 신성한 사랑과의 대화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가 거룩한 사랑으로 사는 데 필수적인 많은 덕행 (특히 겸손)에서 완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거룩한 사랑은 교향곡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이해하여라. 한 교향곡은 전체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악기들의 연주를 필요로 한다. 거룩한 사랑에서 영혼은 거룩한 사랑의 깊은 미덕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덕행에 숙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는 너에게 순교, 곧 사랑의 순교자가 되어기를 요청해 왔다. 순교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자신을 완전하게 버리는 것이다. 너는 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내 도움과 함께 이를 성취할 수 있다. 모든 덕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다.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부분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할 때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가장 순수한 노력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 때에 내가 너를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기억하여라. 네가 스스로 이 선교사업을 선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너를 불러 왔고 네가 이에 응답해 왔다. 너는 내가 너의 대답이 더 완벽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를 묻고 있다. 내가 네게 설명한다.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약점의 부분을 드러낼 때 실망하여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전진하여라. 내가 각 결점을 극복하도록 너를 도울 것이다. 꼭 이 선교사업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있는 것처럼, 너의 완벽은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있기 때문이다.”

이 시리즈의 전 편에서와 같이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은 2000년 5월 20일 에 주신 메시지에서

영혼이 구원의 길을 따르는 진행에서 택하는 다섯 단계를 서술했습니다. 이 단계들 중 둘은 이미 논의되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제10편에서 1단계는 구원 그리고 제11편에서 2단계는 거룩함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완덕이라고 부르는 3단계에 대해서 그 성인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에 뿌리박고 있는 영혼은 덕행에서 완벽하게 되는 것에 그의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는 덕행을 열심히 실천하고 그의 영혼 안에 미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훌륭한 노력을 보실 때 그분께서 그 영혼에게 이 미덕을 불어넣으십니다.”

구원의 길에서 완덕이 이 단계, 곧 하나 되신 성심의 셋째 심방으로서 상징되는 3단계의 주된 초점이기 때문에 영혼들이 완덕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덕행을 근면하게 실천하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안토니오 성인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덕행에서 완벽하기를 원하면서 고결한 삶을 사는 것에 관하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2006년 1월 7일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성인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돋우기 위하여 왔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받아들인 모든 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이 미덕의 벽돌들을

제자리에 유지시키는 모르타르(mortar, 회반죽)라는 것을 부디 이해하십시오. 모르타르 없이는, 벽돌들은 부서지고 허물어집니다. 기도 없이는, 미덕들은 나약함과 죄로 대치됩니다. 튼튼한 벽돌담은 불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르타르없이 벽돌담은 쉽게 쓰러질수 있고 사탄의 속임수의 불길에 의해 모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할 때, 여러분은 사탄이 그자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도록 여지를 남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기 연민, 이기심, 탐욕 그외 여러가지에 빠집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고결한 삶인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계획에 일치하게 됩니다. 그 때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하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동기가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2011년 9월 9일자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기도문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심방을 통한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여정을 깊이하는 수단으로서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완덕을

찾는 미덕을 보호하기 위해 신앙의 수호자이시고 모든 미덕의 옹호자이신 마리아께 청원하십시오.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영혼들이 그들의 개인의 거룩함을 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기 위해 왔다:

사랑하올 티없으신 성모 성심이시여, 신앙의 수호자이시고 모든 덕의 방어자이시여,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시여, 제 마음을 받아 주시어 어머니의 애정어린 눈길로 보살펴 주옵소서. 제가 완성시키고저 하는 덕행을 보호하시옵고 덕행을 해치는 어떤 결함이라도 알아보게 하옵시며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덕행의 길로 들어선 저의 삶을 당신의 보살핌에 내맡기나이다. 아멘.”

근면하게 덕행을 실천하는 것에 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또한 **2006년 8월 24일**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성인은 영혼이 미덕에서 그의 약점과 결점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십니다.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 그 약한 덕행들을 실천하고 기도하기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메시지에서 토마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덕은 마리아 성심에서 받는 은총들과 자유의지가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결함입니다. 영혼이 덕을 쌓기 위해서는, 우선 그 안에서 그의 결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혼이 성급함에 빠지면, 그는 인내의 은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서서히 영혼에게 인내의 덕을 강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왜 자기 인식이 것처럼 중요한지를 알겠지요. 영혼은 자기 인식 없이 하느님 뜻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덕은 하느님 뜻에 순응을 반대하여 싸우는 죄악에서 대항합니다. 각 영혼은 그 자신의 개개의 싸움, 곧 덕행에서의 그 자신의 결점, 그 자신의 장점과 결점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악은 완덕에 이르는 모든 단계마다 다 방해합니다. 사탄은 개인의 거룩함을 생각만 해도 움츠립니다. 이런 까닭에 남들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영혼의 여정에서 개인의 거룩함의 성장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 지를 아시고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그 덕행들을 위해 필요한 은총을 불러넣으시고 제공하십니다. 영혼이 저지르는 눈에 띄는 결점이 첫째와 둘째 심방에서 (거룩한 사랑의 불꽃으로) 정화되고 순화됩니다. 그런 다음 셋째 심방에서 신성한 사랑의 불꽃으로 미덕이 완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7월 26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이에 대한 격려의 세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성심의 심방들로 계속하는 여정을 따라 너희를 돕기 위해 오고 있다. 나의 메신저야, 아무데도 이 여정은 영혼 홀로가 아니라 항상 내 어머니와 나 자신의 도움과 함께 떠난다는 것을 주목하여라. 거룩한 사랑의 불꽃, 곧 티없으신 성심의 불꽃 안에서 영혼은 그의 역력한 잘못과 사랑에 거슬러 지은 죄들이 정화된다. 그리하여 영혼은 나의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의 불꽃, 곧 신성한 사랑의 불꽃에 잠기게 될 준비가 된다. 거룩한 사랑의 불꽃이 정화의 불꽃인 것처럼, 신성한 사랑의 불꽃은 완덕의 불꽃이다. 따라서, 영원하고 신성한 사랑의 이 불꽃에 침몰될 때, 영혼은 덕행에서 완전해지고,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 일치될 이루게 된다.”

“아무도 먼저 신성한 사랑의 불꽃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심 즉, 그분의 신성한 뜻인 그 성심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신뢰하는 영혼이 예수 성심의 네 심방들을 통하는 여정, 특히 셋째 심방에 달하고 미덕에서 완전한 이르는 진전에 신성한 사랑의 불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된 세목을 주셨습니다. 2000년 4월 7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첫 두 심방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불꽃과 영혼 안에서 불안정하고 감박이는 불꽃과의 공통점을 논의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셋째 심방은 뚜렷한 변화를 가져온다. 성심이 처음 두 심방에서

쌓아올린 진보가 밝혀진다. 영혼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불꽃은 그의 주변의 세상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는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랑의 순교자다 [넷째 심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윽고 이 메시지들에서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느님의 뜻에 잠김을 위해 계속하고 있는 영혼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완덕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여정” 시리즈의 제 11편에서 **둘째 심방에 대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2000년 8월** 후반에 예수님께서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의 초보라고 불리는 소수의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2000년 8월 25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예수 성심의 셋째 심방에서 영혼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요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성심의 셋째 심방은 내 사랑의 순교자들이 형성되는 심방이다. 그것은 완덕이다. 따라서 셋째 심방 (완덕)에서:

- * 영혼은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그의 모든 덕의 실천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받는다.
- * 그는 이 덕들을 실천하면서 은총의 도움으로 잘 조화시킨다.
- * 하느님께서서는 그의 노력을 보시고 그 영혼에게 덕을 불어넣으신다.

따라서 셋째 심방은 또한 ‘완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 성심의

이 심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설의 이 시점에서 미덕의 완벽을 추구하는 것과 인간의 완벽 또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 사이에 차이는 영혼의 사랑의 대상과 영혼이 그의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완덕을 추구하는 경우, 영혼은 자기 자신이나 어떤 세속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립니다. 인간 완벽을 추구하는 경우, 그것은 그저 그 반대에 불과합니다. 영혼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하느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해 더 걱정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10월 30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그것을 가장 적절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완덕과 완벽주의자가 되는 것 사이에 차이에 관하여 너희와 이야기하기 위해 왔다. 완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에 대한 사랑에서 그렇게 한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완전주의를 찾는 사람은 내 성심과 자신의 마음사이에 벽을 세우고 있다.”

“유일한 관심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면, 거룩함과 완덕을 원하는 것이 고귀한 목표다. 이런 영혼은 세속의 존경에 관심이 없다. 그는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협력하면서 평화롭다.”

“세속적인 완벽주의자는 남들이 그를 인지하는 태도에 크게 관심이 있다. 그가 실책을 범하면, 그는 재빨리 변명하고 남들의 탓으로 돌린다. 이러한 사람은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 완벽주의자는 그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지만, 그는 쉽게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볼 수 있다.”

“덕행에 속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 자신의 의지를 저버리는 반면에, 완벽주의자는 그가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의견으로 가득차 있다. 완벽주의자는 흔히 스스로를 그의 생각과 동기의 중심에 올려놓는 데 반하여, 완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을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에 두려고 노력한다.”

“완벽주의자는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 양쪽을 용서하는 것이 힘이 든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언제나 참작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은 용서해야 하고, 인간의 용서는 그 영혼의 겸손을 반영하는 거울이고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그림자다.”

비교해 보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완덕을 찾는 영혼은 이기심과 용서하지 못함에 깊이 빠져 있는 완벽주의자와는 달리 그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신뢰하여 내맡김에 더 쉽사리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고결한 생애를 삶에서 필수적인 미덕의 핵심인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기에는 힘든 일입니다.

2002년 7월 24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닥다리를 또다시 생각하십시오. 사닥다리의 가로대 (발판) 들은 덕행이고, 그것의 난간(欄干)은 사랑과 겸손입니다. 한 가로대가 난간에서 부숴지면 더 이상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로대로 닳아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가로대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덕행도 이와 같습니다. 덕은 다만 사랑과 겸손이 영혼 안에서 깊은만큼 깊습니다. 사랑과 겸손에 근거를 두지 않은 덕은 머지않아 실제로는 거짓으로 굴복합니다.”

“모든 덕은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거룩함의 사닥다리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떨어질 것입니다. 인내의 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겸손의 지지를 받지 않는 영혼은 쉽게 참을성이 없게 됩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의 뜻에 관한 것보다는 그 자신이 ‘한심스럽구나!’ 그리고 모든것이 어떻게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인내와 온유, 그 밖에 많은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사랑과 겸손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거룩함과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전진을 위한 전체 영적 추구의

대립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덕을 찾는 영혼은 둘째 심방에서 (이 시리즈 제11편에서 2000년 1월 27일 메시지 참조) 그의 마음속에 그의 미덕에 대한 지식과 깊이에 대한 중요성의 의식이 강해집니다. 일단 영혼이 그의 가장 작은 애착과 무절제한 습관을 극복하면, 거룩함에 대한 갈망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욕망이 결국 영혼을 셋째심방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2003년 3월 8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영혼이 첫째 심방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그의 죄가 정화된다.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 거룩함인 둘째 심방으로 들어갈 때, 그가 첫째 심방에서 경험으로 얻은 정화는 그와 함께 머물고 계속한다.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 거룩해지기를 추구함에 따라 그는 사소한 잘못이나 죄를 한층 더 알고,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점차, 영혼은 미덕의 완성 (완덕) 인 셋째 심방에 끌어들여진다. 덕행은 현재의 순간에서 결함의 인식 즉, 첫째 심방과 둘째 심방을 통해서 심화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하느님의 나라, 곧 하느님의 뜻의 나라가 영혼 자체 안에 하느님의 뜻과 일치로 통해 확립될 때까지 이어진다.”

“그러니 보아라. 이 영적 여정은 인간의 마음속에 한 집 즉, 영적 피신처를 짓는 것과 같다. 하느님의

뜻의 나라가 너희의 마음에 군림할 때까지 한 블록(block, 콘크리트 덩어리)이 다른 블록을 기반으로 쌓아진다.”

완덕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 다른 요인과 함께 하느님의 뜻과 영적 일치를 확립하는 목표에 공헌하는 방법의 좋은 비유를 제공하셨습니다. 2000년 7월 3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큰 연장통과 같은 것으로 그 통이 그분의 신성한 뜻이라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기를 바란다. 영혼들을 그분의 뜻과의 일치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연장은 그 통 안에 들어 있다. 그 연장들은 모두 적당한 순서와 크기로 주어진 충분한 은총과 미덕 그리고 자아 인식이다. 올바르게 사용되면, 영혼은 그의 마음속에 내 아버지의 성심과 일치하는 마음을 구성할 수 있다.”

하느님의 뜻과 일치를 위해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에 도움이 되는 완덕의 가치를 되풀이하면서

2003년 3월 8일의 그분의 메시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제공하신 (심방들을 거쳐가는 영적 여정을 상징하는) 한 가옥을 세우는 공사에서 (덕을 대표하는) 연장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1년 1월 15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는 내 성심의 심방들에 관한 내 메시지들은 천국과 거룩함 그리고 성화에

이르는 설계도와 같다. 이 행로와 내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더 복잡하고, 거룩함은 파악하기 어렵고, 성화는 비현실적인 목표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 이외에도, 그들은 동력 연장들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동력 연장들은 미덕들이다.”

“정녕 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각 영혼을 위해 설계도를 그려왔고 영혼에게 그 자신의 집을 짓거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건설하기 위한 동력 연장들을 또한 주고 싶어한다. 영혼이 내 계획에 주의해서 따르면 따를수록, 더욱더 그의 집은 완벽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목수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천국이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정이라고 부르는 이 전반적이 설계도에서, 우리는 예수 성심의 지성소의 영적 활동을 드러내는 메시지들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1999년 10월 17일에 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영혼이 둘째와 셋째 심방에 있는 동안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둘째 심방에 인도된 후에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은 이 시리즈의 제11편을 참조하십시오.) 1999년 10월 17일 메시지의 일부에서 셋째 심방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영혼이 그의 작은 애착과 무질서한 습관을 압도하는 목적을 이루면, 그는 내 성심의 셋째 심방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심방에서 미덕은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들은 무르익는다. 그 영혼은 그의 진전이 평범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소수의 영혼이 이 심방에 들어가고 그 정도로 사랑에서 완벽하려고 한다. 이것이 내가 나의 성인들과 나의 사랑의 순교자들을 고르는 심방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영혼들이 가장 심하게 사탄에 의해 시험을 당하는 심방이다. 영혼은 그가 낙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심방에서 대담한 덕행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마다 하느님께서 영혼이 덕행에서 대담하게 되기위해 필요한 은총을 불어넣으십니다. 훌륭한 덕행은 영혼이 개인의 희생이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덕행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영혼이 완덕에서의 성장을 막는 모든 것은 그의 아집일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영혼이 완벽하기를 찾고 있는 덕행과 반대로 행동하도록 가장 심하게 사탄에 유혹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혼이 참을성과 온순함에서 시험되고 있으면, 사탄은 분노의 생각이나 ‘한심스럽다. 나는 이 괴로움에 직면하여 참을성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영혼을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영혼이 겸손에서 시험과정에 있다면, 사탄이 자기만을 위한 사랑과 교만의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끊임없이 더 깊은 완덕을

추구하면서 그자신이 겸손하거나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자신보다 더 고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서 완덕 (셋째 심방)과 하느님 뜻에 순응 (넷째 심방)에서 지금 이 각 순간에 받는 은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2001년 4월 25일에 주신 그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또다시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왔다. 지금 이 순간의 은총으로 너희는 내 성심의 심방으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미덕에서 너희의 완덕과 신성한 뜻에 너희의 순응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매 현 순간은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여라. 매 현순간은 덕의 평가의 시련이다. 덕은 오직 시련에서만 완전하게 된다. 만약 너희가 인내심을 갖기를 원하면, 인내심을 가질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따라서 인내심을 쌓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겸손을 원하면, 너희는 겸손해질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모든 덕과 함께 할 것이다. 덕에의 도전은 영혼 안에 그 덕의 존재나 결여의 증거다.”

“그러나 영혼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그는 또한 성장과 완성의 기회도 놓친다.” 매일 일어나자 곧 영혼은 온 종일 덕행에서 시험을 거치고 완벽해지는 은총을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8월에 받았던 심방들의 각각에서 일어나는 즉각의 요약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서론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2001년 1월과 2월에 일련의 메시지를 지시하시고 (2003년의 여섯째 심방의 계시 전의) 하나 되신 성심의 다섯 심방들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소책자,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계시: 비밀을 밝힘’로 출판되었습니다. (United Hearts Book Store와 Holy Love 웹사이트에서 입수 가능.)

하나 되신 성심의 셋째 심방 (예수 성심)에 관한 이 논문에서 논의해 온 모든 것의 요약한 논평은 예수님께서 2001년 1월 27일에 지시하신 메시지 즉,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계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의 예수다. 영혼이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결심하면, 그의 마음속에 덕들의 깊이(심각성)나 깊이의 결핍을 더 깨닫게 된다. 모든 덕은 사랑과 겸손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겸손의 깊이가 모든 덕의 깊이를 결정한다.”

“모든 덕은 성령의 힘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이 애정을 기울이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 수도 있으나 이 덕들이 마음속에서 활동적이고 번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허위의 행위다. 어떤 덕도 지성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겸손하고 거룩하고 고결한 사람으로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짓 덕을 행하고 있다. 덕의 실천은 영혼과 그의 창조주 사이에서 있어야 한다.”

“영혼은 마음속에서 덕을 닦고 하느님 보시기에 순화되기를 시도함에 따라 영혼은 내 성심의 셋째 심방으로 들어간다. 이 심방에서 영혼은 모든 덕에서 되풀이 하여 시험받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영혼의 반응에 따라서 덕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시험이다.”

“이것은 신성한 사랑의 불꽃에서 덕을 금처럼 시험함으로써, 거룩함을 미세 조정하는 심방이다. 금이 정련되는 것과 같이, 영혼은 내 성심의 다음 [넷째] 심방을 위하여 준비된다.”

하나 되신 성심의 셋째 심방의 계시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넷째 심방 (하느님의 뜻에 순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혼은 거룩함에서 (미세)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화의 불꽃에서 금을 정제하는 것과 같이 덕행에서 반복해서 시험을 받음으로써 미조정됩니다. 이 논문의 시작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00년 3월 18일 예수님의 메시지 즉, “그들 자신을 나의 작은 사랑의 순교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나는 높이 들어올릴 것이다.”) 이러한 영혼들은 넷째 심방에 들어가려면 사랑의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점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확히 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제자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의 우리를 위한 그분의 신성한 사랑 안에서 그들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이 하나 되신 성심의 셋째에서 넷째 심방으로의 과도기에 들어가는 경우에,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에서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계시하실 때, 우리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2000년 2월 7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음 말할 것을 너희와 나누기 원하면서 왔다. 모든 미사가 올려질 때 나의 수난과 죽음을 느끼는 것은 내 성심의 넷째 심방 안에서 일어난다.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여 내가 사제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도 또한 이 심방 안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내 어머니의 발현들에 대해서 경솔한 판단을 내리는 사제들뿐만 아니라 배교와 (교회의) 분파, 그리고 이교 신앙도 이 넷째 심방에서 슬퍼한다.”

“그러므로 내가 셋째 심방에서 선택한 영혼들은 내가 고난을 겪었고 계속 그렇게 겪는 것처럼 희생 제물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희생 영혼이 내 성심의 넷째 심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니다. 이들은 내가 이 심방으로 초대하고 내 아버지의 뜻과 가장 완전히 일치하는 영혼들만이다. 이들은 극단적으로 단순화하고 겸손하며 거룩한

사랑을 수행하고 있는 영혼들이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방식을
가르쳐줄 것이다. 나는 참을성이
있고 너그러운 선생이다.”

하나 되신 성심의 셋째 심방의
영성을 알리는 이 논문을 한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끝마칩니다.
이 메시지는 ‘**영적 여정**’ 시리즈의
다음 편 (**제13편**)을 시작하기
위해서도 인용할 것입니다. 제
13편에서는 하나 되신 성심의
게시 메시지들에 주의를 집중할
것입니다. 게시 메시지들은 ‘하느님의
뜻에 순응’으로 알려진 넷째 심방의
영성을 드러냅니다.

1999년 10월 20일에 받은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매야, 너는
내 성심의 가장 깊고 가장 내밀한
심방을 이해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주와의 이러한

일치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심방에서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
순응한다. 내가 셋째 심방에서
내 성인과 사랑의 순교자로 뽑은
아주 적은 수의 영혼들은 넷째이며
가장 내밀한 심방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거룩한 사랑을 수행해 왔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나의 성심
사이에 장애가 되어 온 가장 사소한
잘못이나 애착을 깨끗이 씻었다.
그들은 사탄의 방해에서 그자를
성공적으로 물리쳤다.”

“이들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으로부터 즉, 그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에서 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들이다. 이
영혼들은 항상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한다. 미덕은 그들의 삶에서
연마되고 조정 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 자신의 힘으로 살지는
않지만 내가 그들을 통해 산다.
이와 같은 영혼들은 내 어머니의
많은 자녀들이 파멸로 빠짐에

따라 내가 내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기 위하여, 향긋한 꽃들로서
그들의 죽음과 동시에 내 어머니의
발치에 놓아드리는 영혼들이다.
이 영혼들은 가장 높은 천국에
도달한다.”

“각 영혼은 이 완전함으로 불리움
받고, 창조되고 선택된다. 나는
영혼과 그의 성화 사이에 어떤
장애도 놓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장애를 선택하거나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혼 그 자신이다. 내가 네게
말하고 있는 것은, 원한다면 각
영혼 마다 다 성덕(聖德)의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혼이 예수님 성심의 가장 친밀한
심방, 곧 하나 되신 성심의 넷째
심방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이
제13편에서 영혼의 영성을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

덕 행

“오늘 나는 덕의 주제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 왔다. 영혼을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로 더 깊이 추진시키는
것은 완덕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진실된 덕행은 자신의 부담에 대한 조치 없이 거룩한 사랑에 근거한
다. 거짓된 덕행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행해진다.”

“진실된 덕행은 거룩한 심방들을 통과하는 여정처럼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꾸밈 없는 덕행은 진
리에 근거한다. 거짓된 덕행은 거짓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과 어울임으로써 그들이 거룩함을 순응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
게 한다. 개인의 거룩함은 오직 육안으로부터 숨겨진 많은 노력의 결과로만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오직 하느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
지에 대해 염려하여라. 이것이 겸손의 덕(겸덕)의 행위다.”

독서: (1테살로니카 3:11-13) [감사와 기도]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
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
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성경]

(복되신 어머니- 2014년 7월 17일)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태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www.RosaryOfTheUnborn.com



태아들을 위한 짧은 묵주



확대한 묵주알 사진



태태아들을 위한 5단 묵주

주문: 전화 440-327-4532이나 온라인 주문.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가격: 5단 묵주 - \$24.95, 짧은 묵주 - \$12.95 (S&H 추가)